



CHANGMU
ARTS CENTER

춤

06

무용월간지 Monthly Dance Magazine **mommm**

Cover Story 안애순 & LG아트센터 <불쌍>

Her Story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고 행복한 그녀 안윤희

Focus on Dance 전통춤 영역의 새로운 실험무대 '봄날, 우리 춤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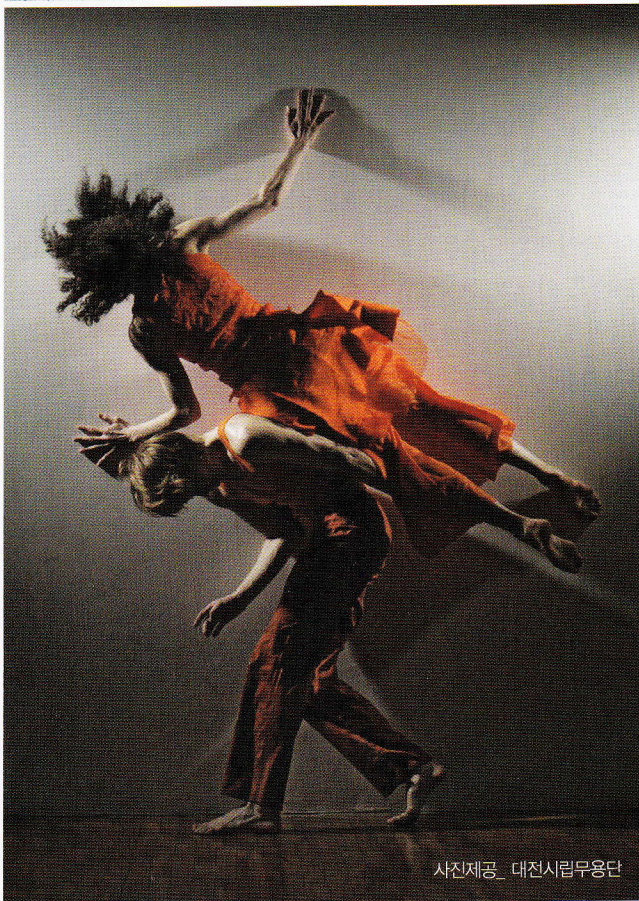
Medical Tips 신종 플루 등 전염병 예방의 계절

Culture Story EXHIBITION 사진 손으로 말하기 눈으로 만지기

New Project 18인, 40여 일간 젊은 춤 파노라마 드림 앤 비전

People 청주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박시중

안애순무용단 <불쌍>
사진 이도희



사진제공_ 대전시립무용단

향긋한 초록내음과 춤소식 가득한 한밭으로의 기차여행

대전시립무용단 제47회 정기공연을 위한 피어슨 워드리그 댄스극단의 사라 피어슨과 패트릭 워드리그의 워크숍현장



사라피어슨

대전시립무용단이 제47회 정기공연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무용전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외국의 안무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한국무용전공자들에게 외국안무가의 작품이 쉽지는 않을 터. 그들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여 발걸음을 향하였다.

자가용으로 가면 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시원한 바람이 좋아 기차여행을 택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차역에 가보니 마음이 설레었다. 조그만 여행가방을 가진 여행객들의 모습까지 반갑고 즐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내내 자가용으로만 다녀서 처음으로 KTX를 타 보고 신기해 하고 있던 차에 기차가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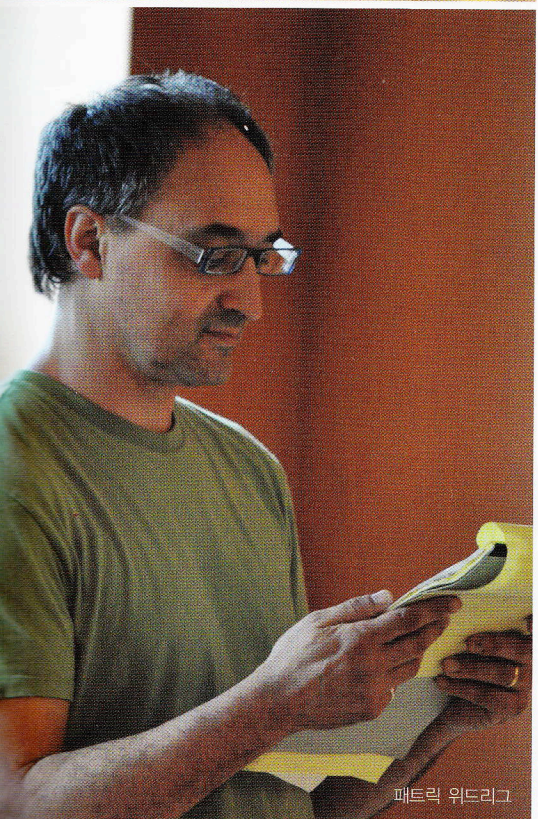
아쉬운 것은 그렇게 설레고 즐겁던 기차여행이 달랑 50분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빨라서 좋은 점이 이렇다 못내 아쉽다는 야릇한 경험을 하고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향했다.

생각보다는 더 넓직한 터에 거대한 지붕의 유연한 추녀 곡선이 인상적인 웅장한 건물에는 아트홀, 앙상블홀, 컨벤션홀과 각종부대시설 그리고 야외원형극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전시립무용단의 연습실은 이미 사라 피어슨과 패트릭 워드리그의 워크숍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기자가 도착했을 때는 두 명씩 짝을 지어 한명은 리더가 되고 한명은 그 리더가 이끄는 데로 움직여지는 역할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며 즉흥춤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미 20년 이상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라와 패트릭은 자신들의 무게중심을 이리 저리로 움직이며 완성된 움직임들을 즉석에서 만들어 내고 있었고 한국무용전공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어서일까 단원들의 움직임은 다소 소극적이고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눈빛으로 집중하며 시종 즐거운 웃음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이번 워크숍은 분명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읽을 수 있었다.

한국무용단에게 외국의 안무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 쉽지



패트릭 워드리그



않은 선택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것이다. 김매자 단장의 열린사고가 다시 한 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처음엔 파트너와 붙어서 진행되던 움직임을 이제는 떨어져도 되도록 허용되었다. 단원들에게 소소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다. 가령 파트너에게 기대더라도 자신의 무게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리더가 이끄는 만큼만 움직임의 범위를 가지는 것, 그 에너지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만큼만 반응하는 것. 리더에게 신호가 온 이후에 움직임을 가질 것 등. 사라와 패트릭은 그들의 즉흥춤 속에서 '예스'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 갔다. 또한 그들은 사이사이 단원들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다. 수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모습은 멀리서 온 강사라기보다는 그저 함께하는 선생님같은 모습으로 단원들도 그들의 따뜻한 모습에 이끌리어 어린 학생들처럼 상기된 모습이었다.

열흘간의 워크숍이 끝나면 단원들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은 앞뒤, 양옆으로만 움직여 사라와 패트릭의 지적을 받았지만 워크숍을 마친 후에는 어느 방향이던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자유분방한 창작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가졌기에 그 연습실 공간이 더욱 열정적이고 뜨거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오전에 파트너와의 호흡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후에는 군무형태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식사 후에 진행되는 움직임이라 워밍업을 시작으로 이루어 졌는데 사라와 패트릭은 단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시립무용단원로서의 경력을 물어왔다.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20년을 앞둔 단원까지 다양한 그들의 경력에 한번 놀라고 단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예술감독이 몇 년에 한번씩 교체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이제 열흘간의 워크숍이 끝나고 그 동안 만들어진 움직임을 가지고 무대에 설 때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몸짓들을 통하여 표출될 것이다.

봄의 마지막 문턱에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면 대전으로의 무용감상을 위한 기차여행은 어떨까? 그 곳에서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YES, '바로 이거야' 라는 감탄사를 토해낼 수 있기를. ❦



사라 피어슨 & 패트릭 위드리그

워크숍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라 피어슨과 패트릭 위드리그를 연습실 한 칸에서 만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한다는 그들은 사랑의 눈빛만큼이나 움직임도 많이 닮아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진제공: 대전시립무용단



사진제공_ 대전시립무용단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한가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으로 처음 1993년, 1994년에 창무회의 초청으로 왔었고 이번에 김매자 단장의 초청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한국에 올 때 마다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이 한국의 예절문화이다. 스승에 대한 예의와 형식을 갖추어 깎듯하게 대하는 모습은 또 한번 새로웠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까지 소극적이거나 다소곳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느껴지는 문화와는 다르게 열정적인 움직임을 표출하는 것은 놀라기까지 하다. 또 함께한 단원들을 보면 집중을 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 같다.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는지

N.Y.U에서 10년동안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모두가 석사과정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박사과 교수들이 되어있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몇몇을 아침겸 점심때 만난 적이 있다. 그들에게서 한국이 1993-4년과 바뀐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금처럼 브런치가 생겼다는 것. 미국에서 흥행하여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처음 브런치라는 아침겸 점심의 문화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무용수가 결혼을 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많은 가사와 육아문제가 지금은 어느정도 남편과 분업화가 되고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생겨 그 때처럼 모든 것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씨어터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비결이 무엇인가

재미있는 비결이라. 결국은 유머러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엇이든 항상 배우려고 한다. 관객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매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유머감각은 솔직함과 많은 지식, 격려가 포함된다. 인생에 있어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다. 예를 들어 나쁜 상황에 직면해서도 슬퍼하며 주저 않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후대책을 생각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조절해야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사라의 엄마는 매우 늙어 이제 언제 하늘의 부름을 받을 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슬픈 것이 아니라 그녀는 더욱 더 유머러스해지고 있다. 대단하지 않은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삶을 더욱 즐겁게 살

아가는 그녀를 보면서 우리 또 배운다. 그리고 그것들을 작품에 녹여내고자 하는 것이다.

부부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아주 절대적인 관계인데 이것이 최상일때와 최하일때가 있다. 따라서 서로의 공간을 더 존중해 주려고 한다. 작품의 주제가 친밀함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의 시·공간은 더없이 그 주제를 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하다.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난 패트릭의 춤에 항상 감명을 받는다. 처음 나의 수업에서 패트릭이 학생으로 들어왔을 때도 난 패트릭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

한국무용전공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렵다고 하지 않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말을 할 수 있다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보통 한달쯤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열흘간에 하려니 단원들도 힘들것이다. 하지만 단원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고 역량도 좋아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워크숍을 통해 단원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 것인가

일단 이번 정기공연에 올려질 작품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무엇보다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움직임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만들어진 동작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어 있던 움직임을 표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YES'라는 탄성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번 정기공연에 올려질 작품은 어떤 것인가

<그래, 그래, 그래(YES, YES, YES)>는 창조를 나타내는 행위이며 매 순간 자신을 움직임속에 몰입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일치하는 순간. 즉, 신체의 각 부분이 동작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100% 만족감을 줄때 '에스!' 하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움직임에서 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난다. 흔히 생기는 질문, 이어지는 대답 등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 갈증을 채우는 순간 바로 '에스!'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배려하고 순간순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통역_정은주 사진·에디터_김미영